

당신에게는 진리이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TRUE FOR YOU, BUT NOT FOR ME'?

By Fritz Klumpp

“당신에게는 진리이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나는 동료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각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진리는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절대적 진리에 기초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승객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항공기 기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True for you, but not for me”? I was stunned that the fellow airline pilot I was speaking with could possibly believe that truth was subjective, simply based upon what one feels is right. How could an airline captain make such a statement, knowing his life as well as the lives of his passengers were dependent on his ability to make correct decisions based on absolute truth?

비행 중 긴급상황을 만나거나, 저시점 접근 중 계기비행을 해야 할 때와 같이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다. 그런데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상업 항공 조종사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Often, as when dealing with an in-flight emergency or when flying on instruments during a low-visibility approach, there is absolutely no room for error. Nonetheless, I have found people like that commercial pilot are not the exception. We live in a world where more people than not believe there are no absolute truths, that everything is relative and subject to individual interpretation.

몇 년 전, 내 친구 님로드 맥네어 대령은 “이봐 프리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비즈니스 원리 중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원칙들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들이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 그들이 효과가 없는 원리들도 많이 가르친다고 덧붙였다.

Years ago, my friend, Col. Nimrod McNair, said: “Fritz, the principles of business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teaches that *actually* work are scripturally based,” teachings we find in the Bible. He went on to explain that it did not necessarily mean the administrators and faculty of the Harvard Graduate School understood that. Nimrod also noted that they teach many principles that do not work.

그런데도, 님로드는 “진리는 어디에서 발견되든 진리다. 그리고 누구든 그 원칙을 적용하면, 특정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친구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주장을 시험하고 또 관찰하였다.

Nonetheless, Nimrod said, "truth is truth, no matter where you find it," and if anyone applies those principles, they should expect certain results. I have never forgotten my friend's words – and over the years, by observation, I have put his premise to the test.

나는 30 년 동안 경영을 탁월하게 해온 회사에서 일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의 성공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빚을 지지 말 것, 직원들을 잘 돌볼 것, 그리고 고객들을 잘 돌볼 것. 이 세 가지였다. 그 회사의 경영팀이 이 세 가지가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인지했든 아니든 이 세 가지 원칙은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들이다.

For 30 years I worked for a company that I believed had been blessed with good management. In time, I realized their success could be attributed to the fact they operated on three basic principles; stay out of debt; take care of your people; and take care of your customers. Whether they knew it or not, each one of these principles is biblical.

예를 들어 구약의 잠언 22:7 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만약 당신이 개인적 또는 회사 차원에서 빚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채권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금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For instance, Proverbs 22:7 in the Bible's Old Testament states, *"The rich rule over the poor, and the borrower is servant to the lender."* If you avoid debt, individually or corporately, you have the freedom to use your financial resources in the best ways possible, without being restricted by a creditor.

잠언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한다.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언 27:23-27).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원리는 만약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잘 돌보면 그들도 당신을 잘 돌보리라는 것이다.

Another passage from Proverbs observes, *"Be sure you know the condition of your flocks, give careful attention to your herds, for riches do not endure forever, and a crown is not secure for all generations.... [If you take care of them] you will have plenty of goats' milk to feed you and your family and to nourish your servant girls"* (Proverbs 27:23-27). The principle here is that if you take proper care of your people, they will take care of you.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 CEO 가 이 원칙에서 벗어나 경영 방침을 바꾸었다. 그 결과로 회사 상황은 악화하였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Unfortunately, the last CEO before my retirement changed course. As he systematically abandoned these principles, the fortunes of the company fell, eventually leading the company into bankruptcy.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에게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8:37-38)이라고 답했고, 불행히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말로 그냥 지나쳐 버렸다.

When asked by Pontius Pilate, governor of Judea, if He was a king, Jesus of Nazareth replied, *"You say rightly that I am a king. For this cause I was born and for this cause I have come into the world, that I should bear witness to the truth."* Sadly, to this Pilate simply replied, *"What is truth?"* (John 18:37-38).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리는 어디에서 발견되던 진리이다.” 사실 내가 사업과 개인적인 삶에서 겪었던 대부분의 실패나 고통은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거나, 또는 성경에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원리와 교훈을 어긴 데서 비롯된 것들이었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

Once again, “Truth is truth, no matter where you find it.” I can honestly say most of the failures and grief I have experienced in business and my personal life can be attributed to violating principles and precepts that are either clearly stated or taught by example from the Scriptures.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누군가가 '그건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진리가 개인의 관점과 신념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는 개념에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How would you respond to someone who said, “That may be true for you, but not for me”? Do you agree with the concept that truth is subjective, dependent upon an individual’s own perspectives and convictions? Why or why not?

2. 무언가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믿는 것의 중요성과 영향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진리를 정의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Have you ever considered the importance and impact of believing there is absolute truth when determining whether something is true or not? What reference do you use in defining what is true?

3. 정밀함에 의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예: 항공기 조종사, 건설 엔지니어 또는 뇌외과 의사)가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What would be your reaction if you encountered a professional whose work is dependent upon precision, such as an airline pilot, a construction engineer or a brain surgeon, who did not believe in the existence of absolute truth?

4. 절대적인 진리, 주관적이지 않은 진리라는 개념을 신앙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의견을 설명해주세요.

Applying the concept of absolute, non-subjective truth to matters of faith, how do you think we should respond to the truths presented in the Bible? Is there room for subje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xplain your answer.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시편 51:6, 119:43-45; 요한복음 8:31-32, 14:15-17, 16:13; 고린도후서 1:12-13

Psalms 51:6, 119:43-45; John 8:31-32, 14:15-17, 16:13; 2 Corinthians 1:12-13

- **(시편 51: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 **(시편 119:43-45)** 43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4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5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 **(요한복음 8:31-32)**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요한복음 14:15-17)**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 **(고린도후서 1:12-13)**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13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이번 주에는 진리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특히 진리가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세요. 당신은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진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나요? 이는 때로 "상황 윤리"라고 불립니다.

This week might be a good time for revisiting your attitude toward truth, especially as it relates to how you conduct your everyday life. Do you adjust your perception of truth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moment, which has sometimes been called "situational ethics"?

직장 동료나 아니면 당신이 참여하는 소그룹의 일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진리에 대해 어떤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알아보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It might be interesting to engage with another person at work, or a small group that you're a part of, to get their perspectives on what they believe about truth and how they go about determining what is true.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